

1. 통영 걸음 거두기

통영항여객선정류소에서 머지않은 곳이었다. 서호시장 언저리. 최정규 시인이 마련한 통영 자료실은 묵은 건물 4층에 자리 잡았다. 최 시인이 어릴 적부터 뛰놀았던 곳이라 한다. 자료관 이름을 ‘통영문학관’이라 붙였다. 전화로 주받았던 이야기와 달랐다. 통영 안에서 최 시인과 얼굴을 맞대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스무 해 가까운 옛 일이다. 2007년 해끝,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마련한 ‘청마 류치환의 친일논란에 대한 학술토론회’¹에 나는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했다. 그때 만난 뒤로 처음이다. 드문드문 전화를 주받을 기회는 있었다. 그럼에도 통영 안에서 마주 앉을 일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통영 걸음을 거두었던 까닭이다. 2009년 봄이지 싶

¹ 해양과학대학 강당, 2007. 12. 29. 14:00. ‘꽤 널’로 나온 이들은 ‘통영예총’에서 김열규·복거일·홍정선이, ‘통영 시민연대’ 쪽에서 김재용·박한용에 나왔다. 이미 류치환 출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예산 집행이 의결된 뒤다. 류치환에 관한 공공 현양사업의 부당성을 꾸준히 홍보해 온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마련된 자리다. 통영시와 의회에서 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당 장들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다. 황동규 시인 내외가 고성 무이산 문수암을 거쳐 통영을 찾고자 했다. 안 내를 겸해 안사람과 함께 통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 뒤로 통영 걸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최 시인과 통영에서 얼굴을 맞댈 기회 또한 갖지 못한 셈이다. 다만 두 해 앞서 한 차례 부산에서 짧게 만날 일이 있었다. 볼 게 없다고 마냥 일렀음에도 아파트 땅밑 내 책창고를 둘러보고 싶어 했다. 통영고교 후배 소설가 공옥식과 함께한 걸음이다. 통영 지역문학 관련 자료를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자료관 채비를 위한 일 가운데 하나거니 생각했다. 점심을 같이한 뒤 서둘러 부산을 떠났던 최 시인이다.

2026년 1월 초순, 자료관 개관식을 한다는 전언이 왔다. 빠른 시일에 들릴 기회를 갖겠노라 덕담을 나누었다. 걸음할 날을 기다리다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한낫 수업을 현장 학습으로 바꾸어 가기로 했다. 3월 27일, 서두른 통영 걸음이었다. 통영문학관 안은 잘 갈무리되어 있었다. 네 군데로 자료를 갈라놓았다. 거실에는 일반 문학 관련 도서가 중심이다. 한 쪽에는 통영 예술문화 자료를, 다른 한 곳에는 경남·부산·울산 지역문학 자료, 가장 큰 방에는 통영 지역문학 문헌을 갈무리했다. 무거움으로 따지자면



통영문학관에서

통영 지역문학 쪽이 으뜸이다. 근대 초기 지역 한문학 자산까지 챙긴 고심이 빛났다. 최 시인이 가장 공을 들였을 뿐 아니라 어떤 꼴로든 뒤 세대에 이어야 할 지역 문화재화다.

최정규는 한누리 고향에서 지역문학과 문화 활동을 펼쳐온 시인이다. 1976년 '통영독서회' 기관지 『물푸레』를 중심으로 빨라진 걸음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통영과 통영문학에 관련한 열띤 풀이를 일행과 함께 들으며 한 시간 남짓 문학관 안에 머물렀다. 그리고 박경련 여사 생가 자리를 찾기 위해 통영문학관을 나섰다. 그 걸음에 명정샘을 거치고, 판데목을 건너 미륵섬 데메에 있다는 김춘수 유물전시관, 박경련이 남편 신현중과 신혼살림을 차렸던 곳에 들르기로 했다. 김춘수 유물전시관은 어떤 꼴일까 궁금했던 터라 굳이 걸음에 넣었다. 이름부터 김춘수문학관이 아니었다. 혹 김춘수문학관 건립이 공론화하면 그이가 저질렀던 정치적 선택과 아세 행각이 문제가 될까 봐 격을 낮춘 결과인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 김춘수문학관을 짓기 위한 임시 시설이라는 풀이다. 정식 공공 기구로 김춘수문학관이 올라서려 한다면 류치진 흉상 자진 철거 사태나 청마문학관 건립, 현양 사업을 둘러썩던 시시비비와 비슷한 논란을 부를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 류치진·류치환 형제에 견주면 김춘수 경우는 큰 흠결이 아니라 여길 수도 있을까. 어쨌든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통영에서 새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누리 '무의미'를 내세웠던 근본 개인주의자에 대한 공적 보상이 굳건한 집단 '의미화'라는, 역설이 그것이다.

해평열녀비각도 오랜만에 찾았다. 김춘수 유물전시관은 그 발치였다. 박경련의 집터를 둘러 본 뒤, 저녁밥을 먹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박경련 생가와 신혼집 자리 답사는 앞으로 쓸, 박경련 시 소개를 위한 자료 챙기기도. 그와 함께, 오늘날 참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기녀 자야와 백석의 거짓 연애담을 넘어서기 위한 바탕 집기 차원이다. 박경련이야말로 백석의 통



해평열녀비각 앞에서

영 걸음을 이끈 중요 빌미 가운데 하나였다. 저녁을 먹으면서 밤 불빛이 자아 올리는 남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저 다도해 바다를 섬만이바다라 일컬었던 이가 있다. 영광 출신에, 목포 수필

가며 배달말 활동가 소청 조희관이다.

목포문학관 전시 공간에는 들지 못한 채, 문학관 뜰에 자그만 돌비 하나로 앉은 그이다. 횃집 창가에 앉아 잊힌 그의 섬마니바다를 내려다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통영 나들이를 즐겼다.

그렇듯 2009년 뒤부터 내가 부산, 마산에서 그리 머지않은 통영 걸음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일은 어찌 보면 웅졸했다 할 수 있다. 그렇건만 통영 지역에 대해 정나미가 푹 떨어진 나였다. 2008년, 류치환의 부왜 문제 시시비비를 두고 통영 지역 예술문화계 무리들이 내 일터 총장실까지 몰려와 나를 어떻게 좀 조치해 달라 청을 넣은 뒤다.

4. 총장님, 의사가 잘못하면 환자 한 명만 피해를 입으나 교사나 교수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수천, 수만을 넘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박태일 교수의 잘못된 논문을 근거로 지극히 일부 좌파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청마를 친일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나 내년 청마탄생 100주년 행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지 않나 해괴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5. 물론 박 교수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은 추후 학계에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논문을 읽은 통영 시민들과 문예예술인들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지부 회장 정해룡이 앞장서서, 수신자를 경남대 총장으로 해서 들고 온 그들 문건 가운데 몇 줄이다. 제목이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의 악의적, 고의적인 청마 친일몰기에 대한 항의」(2007. 11. 30)였다. 류치환의 만주 도피 행각의 바탕, 만주국 생활의 구체적인 실체와 부왜시에 대한 풀이를 더한 내 글이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통영 출향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이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류치환의 부왜 줄글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 원문을 세상에 밝혔다. 2000년대 초반 류치진·류치환 현양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류치환의 부왜 시비를 새 국면으로 올려세운 글이다.

그러자 통영예총은 아예 내가 그 글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공개했다며 길길이 뛰었다.² 자신들이나 평소 버릇처럼 저지를 법한 비리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회피한’ 접근법이였다. 그런 꼬락서니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만한 애교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나마 통영 지역을 향해 오래 지냈던 호감에 먹칠을 하는 짓거리임에는 달라짐이 없었다. 그런 마당이니 바쁜 세월 속에서 내 시간, 내 마음 써가면서 굳이 통영에 발을 들일 까닭이 없었다. 집에서 2시간 남짓이면 닿을 통영이다. 한 해 몇 차례, 제자들과 함께가는 문학답사에서 통영은 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

2. 류치환 부왜 시시비비의 경과

한국예총 통영지부로부터 “악의적, 고의적인 청마 친일몰기”라며 집단 발작증을 일으키게 만든 글,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는 2007년 해끝에 이

2 「옛장수 가위질 같은 청마친일혐의 씌우기」, 『경남일보』, 경남일보사, 2007. 11. 6.

루어졌다. 그런데 이 글은 류치환을 부왜 시인으로 ‘단정’하고 표적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다. 공부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중간 보고였다. 첫째, 지역문학연구가로서 내적 필연성이 하나다.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는 발표되기 훨씬 앞선 1999년에 이미 밑바탕을 다져 놓은 글이다.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³이 그것이다.

내가 학문 공동체에 자리를 잡고 지역문학연구를 조직적으로 꾀한 때는 1997년이다. 의열단 김원봉 장군의 아내였던 부산 동래 박차정 열사가 동래 여고(동래일신녀학교)에 다닐 무렵 내놓은 시·소설을 소개한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에다 그 글을 실은 『지역문학연구』 창간호 발간이 출발이었다. 그에 앞서 경남·부산 지역문학 관련 글은 이미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 마산 출신 김용호를 대상으로 삼은, 「김용호 시의 세계 체험과 그 틀」⁴이다.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부산가톨릭대학)에서 마산 경남대학교로 일터를 옮긴 이듬해 일이다. 학문 공동체에 본격 몸을 담으면서부터 지역문학연구의 고삐를 팍 쥔 맵시다. 그리고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은 경남·부산 지역문학 가운데서도 특정 소지역 단위의 통시적 구명으로서 첫 글이었다. 그 글 뒤로 소지역 대상의 통시적 흐름을 겨냥한 글은 고향 합천을 문제 삼은 「합천 지역시의 흐름」⁵과 「근대 개성 지역문학의 전개 - 북한 지역문학사 연구 2」⁶에 머문다. 그만큼 통영 지역문학은 내게 문제적인 지역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일찍부터 지역문학연구의 보람과 즐거움을 안겨 준 곳이었던 셈이다.

지역문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걸음을 빠르게 옮기고자 했던 내 앞에는 시급히 풀어야 할 두 과제가 놓여 있었다. 나라잃은시대 경남·부산 지

3 『통영·거제지역 연구』,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1999.

4 『가라문화』 제7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9.

5 『합천예술문화연구』 창간호, 향파이주홍선생기념사업회, 2007.

6 『국제어문학』 25집, 국제어문학회, 2012.

역문학인의 부왜 문제와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 활동 구명이 그것이다. 지역 명망 문학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의 부왜 양상이 뜻밖에도 심각했다. 오랜 세월, 일국주의 중앙의 잣대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생산, 확산, 고착된 명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그와 거꾸로 역내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다.

그리하여 역내 부왜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글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을 2002년에 내놓았다. 그 글을 집거나 더 나아가 개별 논의까지 꾸준히 이었다.⁷ 아울러 「경남 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⁸를 빌려 지역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 전통을 구명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그러하니 “악의적, 고의적인 청마 친일몰기”라며 통영예총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는 뜬금없이 이루어진, “악의적, 고의적인” 글이 아니다. 지역 부왜 문학인 규명을 위한 공부의 순차 과정에서 밝힌 인물론으로서 세 번째 대상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몽골에서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나는, 2005년 연구계획서를 냈다. 이미 2002년 총론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에 이름을 올린 낱낱 인물 가운데서 ‘절필’이라는 거짓 담론을 타고 앉은 소설가 김정환을 처음으로, ‘민족’ 담론으로 높다랗게 벽을 쳐 둔 이원수를 따지고 든 뒤였다. 그리고 연구년 과제로 이른바 ‘대가’ 포장으로 화려하기만 할 뿐인 류치환으로 건너선 것이다. 몽골에서 돌아와, 본격 작업을 벌였다. 2007년 10월 한국

7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한국문학논총』 제30집, 한국문학회, 2002; 「김정환 희곡 「인가지」 연구」,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배달말』 제32집, 배달말학회, 2003; 「나라잃은시대 후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 이원수와 남대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005; 「경남 지역 부왜문학 연구의 과제」, 『인문논총』 제19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그리고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에 이어 역내 논의는 두 편을 더했다. 「나라잃은시대 후기 이원수의 아동문학」, 『어문론총』 제47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만선일보』와 경남·부산 지역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3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8 『어문학』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하고, 12월에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게재를 마쳤다. 그 뒤, 통영예총의 항의를 받은 것이다.

둘째, 지역문학연구자로서 당대 요구에 대한 나름의 실천 방식이다. 지역문학연구가 나아가는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는 문학예술 현장의 인습 타파나 실천적 방안 제시다. 따라서 지역문학연구는 문학 연구 방법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학문 외부성이 높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향후 사회적 기여도가 의제 설정의 주요 동기다.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류치환·류치환 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거제·통영 안팎의 공적 현양 사업과 맞물려 꾸준히 이어졌던 시시비비를 두고 학문 공동체에서 내놓은 화답 형식이었다.

거제·통영 지역 사람들이 지닌 류치환 현양 인습의 뿌리는 오래다. 거제에서는 1989년 류치환 시비 제막을 시작으로 1996년 생가 복원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벌이면서 공론을 탔다. 그리하여 부산 백운공원 묘지에 있었던 류치환 무덤을 거제로 옮기는 일을 꾀했다. 그에 앞서 류치환은 오늘날 동아대학교 교정 하단 산기슭에 묻혀 있었다. 동아대학교가 대신동에 있던 학교를 그리로 옮기면서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건립 예정지에 있었던 류치환 무덤을 두고 동아대는 처음, 옮기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을 고려했다. 그러나 뒷날 죽음 뒤 자신까지 함께 묻어 달라고 류치환 아내 권재순이 고집을 꾀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남편의 여자 편력으로 평생 속이 썩고 짓물렀던 그미로서는 비원이 서린 요구일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 쪽이 뜻을 접었다. 그리하여 류치환 무덤은 친구 박영한 시인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양산 백운공원 묘지로 옮겨졌다. 그 뒤 거제시와 통영시 사이 류치환이라는 상징 자본을 두고 이루어진 예술문화 행정 기싸움에서 거제시가 무덤을 거제로 옮기는 선수를 쳐 성공한 것이다. 고향 귀속 시비와 같은, 비본질적인 행정·법적 알력을 거듭하며 불쌍사나웠던 때다. 아들을 두지 못

한 류치환 직계 유족으로서는 사후 예우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거제시 쪽 권유가 어찌 솔깃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라 세금으로 집안 산소를 두고 두고 지켜준다는 이야기였던 까닭이다.

그러는 사이, 통영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류치진·류치환 부왜 시시비비와 현양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1997년부터 청마문학관 건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철저한 검증 없이 류치환 기념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재고를 바랐다. 그것이 2006년부터, 2008년 류치환 출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감행하려는 통영시 처사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더욱 격화했다. 그때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성명서-친일작가 류치환의 기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⁹가 그 속살을 잘 알려준다. 『통영신문』 전면 광고를 빌린 글이다.

“시민의 혈세로 친일작가를 옹호하며 각종기념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통영문인협회 회원인 진의장 통영시장의 청마문학관 운영과 청마문학상 시상 청마시비 세움에 대해 즉각 중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일작가의 기념 사업 추진에 앞서서 한산대첩기념관과 통영3·1의거기념관 및 통영 문화예술전시관 건립에 먼저 주력하는 것이 옳은 도리고 순서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끝으로 “이제 친일청산은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를 울곧게 열어가는 열쇠다.” “한번 밝혀진 진실은 결코 숨기고 묻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역사적 진실뿐”이라 맺었다.

그런 긴 과정에서 최정규는 싸움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통영 지역 안쪽의 부왜 문학인 류치진·류치환 현양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끌며 기꺼이 갖은 손해를 받아들였다. 2006년 최정규 시인의 칼럼 「진의

9 『통영신문』, 통영신문사, 2006. 11. 10.-11. 6.

장 시장에게 보내는 글」¹⁰이 그런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갖가지 류치환 기념사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산대첩 기념관 하나 없는 통영에 부왜 문학인 현양이 웬 말이나는 노여움을 드높였다. “터무니없는 부왜 의혹”, “근거 없는 억지 주장”, “류치환에 대한 음해”, “주변 지인들의 결백 증언”을 들먹거리며 지역 여론을 누르고 사업을 강행했던 통영시(시장 진의장)를 향한 여러 차례 항의에 이은 글이다. 물론 거제·통영 지역에서 이루어진 불쌍사나운 두 행정 자치단체 사이의 류치환 명성 따먹기 알력과 갈등, 법정 시시비비는 유래가 드문 일이었다. 그와 맞서 류치환·류치환 형제 현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대응, 또한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 그 의의와 뜻을 통영 문화지는 물론 뒷날 겨레 예술문화사에 뚜렷하게 새겨둘 일이다.

그런데 거제·통영 역내 문제와 논란은 공교롭게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곧 부왜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조사, 연구, 의결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여러 인물 가운데 문학 쪽에서 류치환과 이원수가 대표적인 논란 대상이었다. 2005년 1차 명단 발표에서 류치환은 보류대상으로 부왜 인사에서 빠졌다. 그 과정에 작품 해석 수준에 머물렀던 류치환의 부왜 시비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내 글이 나온 것이다.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는 류치환을 민족시인인 양 떠받들어왔던 부분과 만주국 체류시의 반민족적인 활동, 그리고 확인한 산문 진술로 밝힌 부왜 복무 의지, 나아가 작품 안쪽에서 보이는 드넓은 친만부왜적 됃됨이까지 낱낱이 밝혔다. 각별히 부왜 줄글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는 물론, 을유광복 뒤에 발표한 만주 체류 시기 작품에서까지 씻지 못한, 자기 성찰 없는 당당한 부왜 성향까지 논의를 넓혔다. 그런 가운데 류치환 이해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인, 류치환이 통영을 떠나게

10 『통영신문』, 통영신문사, 2006. 12. 8.-12. 14.

된 까닭의 뚜껑을 뗐다. 집안 안에서 저지른 개인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았다는 개인 도주설이다. 왜경에 의한 지사적 도피라는, 허무맹랑한 거짓을 얼어젖힌 셈이다.

그럼에도 2008년 의성 사람 임현영이 소장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 결정에서 류치환은 아예 빠졌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2차 조사 대상으로 류치환을 밀쳐놓는 꾀를 썼다. 내가 눈길을 주고 있었던 경남·부산 지역 문학인 가운데서 이원수·정인섭·신고송은 이름을 올렸고, 김소운은 빠졌다. 고개가 가웃겨려지는 결정이었다. 계급주의 연극의 맨 앞자리에서 고투하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르고 ‘전향’했던 신고송이 오른 것과 한결같은 부왜 문인 류치환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문학인의 부왜 문제 조사, 결정에 중요한 몫을 맡았을 중심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통영 사람 김재용이었다. 류치환의 부왜 행각과 지난 시기 통영 지역사회 안에서 류치환을 향했던 정보를 잘 알 수 있었을 이다. 공개적으로 류치환의 부왜 작품을 밝히기도 했던 사람이다.¹¹ 그런 이가 왜 물러선 것일까. 더 위쪽 의결권자의 류치환 구하기에 맞서지 못한 것일까. 들리는 소문에 마지막 의결 날 외유를 떠났다 해 마뜩찮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자리를 비우는 잔피는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책임 회피 방식인 까닭이다. 언젠가 본인 해명이 있어야 할 일이다.

어쨌든『친일인명사전』 수록 명단 발표 뒤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부왜 문학인 조사나 재조사는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부왜문학과 부왜인 조사, 연구, 수정은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한다. 넣을 놈 다 넣고 뺄 분 다 뺐으니, 더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인지 모른다.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태다. 2026년 현재, 아직까지도 식민지와 피식민지, 식민

11 「유치환의 친일 행적들」,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4. 8. 7.

자와 피식민자, 친일과 부왜를 나눌 판단력도 없을 뿐더러, 왜로가 역사의 주체가 된 일컬음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리석은 역사용어를 거침없이 쓰고 있는 정신머리다. 당연한 일처리인지 모른다. 그나마 출범 초기에 썼던 ‘한일합방’이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역사용어는 ‘경술국치’와 ‘을사늑약’으로 바로잡아 쓰는 듯하다. 부왜 문학인 문제가 손가락으로 짚어서 금방 끝을 만한 수준인 고작 40명으로 해결될 일인가. 학연, 지연, 문학권력이 얽힌 해묵은 문학사회의 이합집산과 이해타산에 사실의 정의를 물어버린 꼴이다. 다른 분야 부왜인은 모르겠으되, 민족문제연구소는 류치환을 비롯해 부왜 문학인 조사, 연구의 핵심 기구로서 뭇을 떠맡을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만큼은 뚜렷해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이원수만 애처롭게 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이고, 무슨 잘못이라고 그 딸이 돌아간 아버지의 부왜 행각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말인가.

어쨌든 2008년 류치환의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격화했던 통영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의 부왜 시시비비는 류치환이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짐으로써 잠복하는 꼴을 보였다. 나 또한 부분적으로 평양 지역문학의 부왜나 경북·대구 쪽 부왜 유림들의 행각을 밝히는 글을 내놓았지만, 부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는 갖지 못했다.¹² 그러나 통영 또는 류치환과 관련해서

12 지역 부왜문학보다는 거꾸로 제국주의 수탈 체제 안에서 고초를 겪었던 이나, 경남·부산 지역 바깥의 부왜 문학 문제로 눈길이 옮겨갔다. 역외 부왜문학 문제로 넓힌 눈길은 1940년대 집단 부왜 단체 평양시화회를 다룬 「1940년대 전기 평양 지역문학 - 북한 지역문학사 연구 3」(『비평문학』 50, 한국비평문학회, 2013)과 「근대 신유교의 한 모습 - 나라잃은시대 경북·대구 지역 유림의 부왜 문학」(『어문론총』 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이 대표 논이다. 경남·부산 지역 역내의 향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공부는 「마산 근대문학의 탄생과 『마산문예구락부』」(『인문논총』 제28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와 「1920년대 부산 지역 청소년문학과 향왜의 경험」(『영주어문』 제25집, 영주어문학회, 2013)이 대표한다. 앞선 것은 정미국채보상열을 이끌었던 충남 보령 출신 동양자 김광재 지사가 마산에서 겪은 고투를 발굴한 것이다. 역외의 향왜, 배외 문학의 자장은 「아나 키스트 시인 전한춘과 시집 『무궤열차』 - 1930-1940년대 동경 간행 한글 시집 연구 1」(『현대문학이론연구』 제5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과 「홍성의 유교 잡지 『인도』 문예면」(『비평문학』 69, 한국비평문학회, 2018)이 대표적이다. 앞의 것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아나키즘을 실천했던 동경 아나

는 대중언론의 칼럼, 문학 잡지의 짧은 줄글로 몇 차례 생각을 담았다.¹³ 2007년에 썼던 글이「통영이 시들다, 퇴영이 명들다-통영의 문학지리학」이다. 통영 지역시의 전통을 짧게 훑으면서 청마문학관의 폐관과 그것을 통영 문학관으로 확대,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글이다.

그리고 보니 유독 류치환이야말로 과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 모든 통영 문학인의 명예를 불가사리처럼 혼자 빨아들인 채 ‘청마문학관’으로 앉은 모습이다. 세상에 자신이 이룬 일보다 부풀린 대접을 받고 있는 이가 어디 류치환 한 사람에 그치라마는 통영에 들어서면 그 느낌이 더하다. 문학 민주화라는 차원뿐 아니라, 사실의 정의에 따라서도 크게 그르친 일이다. 여러 해 옆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 불쌍사나운 힘겨루기 말고는 큰 뜻이 없을 두 지역의 류치환 개인 현양 경쟁 행정은 그나마 통영 바깥 사람들이 지냈을 류치환에 대한 호의적인 추억에마져 구정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통영 시민사회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류치환에 대한 현양은 고스란히 통영 근대 예술문화 전통에 대한 왜곡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잠재력을 왜곡시키는 행정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해 앞선 때 청마문학관이 섰다 해서 거기에 들렀다 크게 놀란 적이 있다. 류치환 시를 바다문학에다 얹어둔 일도 우습거니와 감히 그를 이육사와

키스트 전한촌의 시를 세상에 알린 글이다. 뒤에서는 충청 지역 유림들이 부왜 유림과 맞선 자리에서 일궈낸 반왜 문학의 자장을 찾았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못지 않을 기개와 겨레사랑을 품은 작품을 볼 수 있었다. 흔히 나라잃은시대를 암흑기라니, 피식민지 문학인으로 부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나, 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부왜에서 남아 날 작가가 몇이나 될까라는, 어리석고도 해묵은 물타기 담론들을 한 칼에 끊을 수 있을 본보기가 어엿했다.

13 「통영이 시들다, 퇴영이 명들다 - 통영의 문학지리학」, 『시와사상』 겨울호, 시와사상사, 2007; 「만주국과 통영 사이 - 김영일의 부왜시 한 편」, 『신생』 여름호, 도서출판 전망, 2008; 「역사적 허위와 문학적 과장 위에 떠 있는 이름」(류치환 논쟁 - 정과리 교수 반론에 따른 박태일 교수의 재반론),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사, 2008. 9. 8.; 「류치환의 부왜시(附倭詩) 「수」와 조상지 장군」, 『국제신문』, 국제신문사, 2015. 7. 15.

같은 자리에 놓고 ‘위대한’ ‘민족시인’으로 추켜세우고 있지 않은가. 남성적인 목소리가 닮았다는 평론가 김현의 한 마디를 침소봉대하여 한껏 끌어다 놓은 지역 문화행정 직원의 무지만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어불성설이란 그런 데 불일 말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오늘에 이르러 류치환이 불륜의 편지질을 해대었다는 우체국을 청마우체국이라 이름을 바꾸려 하고, 어린 학생들을 끌어다 놓고 무슨 편지쓰기 행사를 치른다는 풍문이 들리는 마당이다. 이게 무슨 수작이냐고 눈 부릅뜬 채 꾸짖을 어른도 없고, 통제영 담장 밖으로 떨어지는 감잎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릴 결기 있는 젊은이도 죄 사라져 버린 퇴영이니 어디 불일 말이 더 있으랴.

- 「퇴영이 멩들다, 퇴영이 시들다 - 통영의 문학지리학」 가운데서

통영 중앙동우체국을 청마우체국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도는 그 뒤 없었던 일로 접혔다.

이어 나는 2008년에 「만주국과 통영 사이-김영일의 부왜 동시 한 편」을 내놓았다. ‘내가 만난 시 한 편’이라는 자리에 올린 글이다. 2008년 통영 문학 답사 때 통영여객선정류소 화장실에 붙어 있는, 부왜 어린이문학가 김영일 (1914-1984) 아들의 시화 작품을 본 뒤였다. 그이가 거제, 통영 어름에서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이문학가로 일한다는 사실은 풍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비록 화장실이긴 하나 그이는 어느덧 통영이 내세울 만한 동시인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만주국 부왜 경찰에서 우리 겨레의 이른바 사상범 검거에 앞장섰던 고등계 경찰로 영전, 서울에서 놀았던 어린이문학가가 김영일이다. 문학사에서는 여느 만주국 부왜 인사들과 비슷하게 ‘만주 방랑’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삶이다. 만주국 밀정 류치환과 만주국 경찰 김영일은 뒹뒹이가 다르지만, 즐기는 하나다. 따지고 들면 김영일 아들이 굳이 류치환의 텃밭인 거제·통영에 뿌리 내린 일이 뜻밖은 아니다.

한 푼 두 푼 뭉은 돈
받지입니다.
황군(皇軍) 앞에 절하고
받지입니다.

우리는 반도(半島)의
어린 용사(勇士)들
황군(皇軍) 품에 고이고이
자랐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드리내인
애국기 소국민호(小國民號)
씩씩하다.

이름도 거룩하지
소국민호(小國民號)
태평양(太平洋) 바다 위로
날러가리라.

산 넘어 바다 넘어
적지 오만리(五萬里)
빛나는 황군(皇軍)의
전과(戰果) 보아라.

대일본(大日本) 일억국민(一億國民)

마음 싹고서

씩씩하게 싸워다고

소국민호(小國民號)야.

- 김영일, 「애국기(愛國機) 소국민호(小國民號)」

1942년 12월호 『아이생활』에 실은 김영일의 부왜 동시 가운데 한 편이다. 이른바 ‘성전’이라 불렀던 ‘대동아전쟁’ 곧 태평양침략전쟁 시기, ‘총후보국(銃後報國)’을 다하노라며 ‘소국민’(어린이)에게서 거두어들이 ‘국방헌금’으로 비행기 ‘소국민호’를 만들어 띄우는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김영일은 송창일·이원수·김상덕 등과 함께 대표 부왜 어린이문학인 맨 앞자리에 놓일 사람이다. 을유광복 뒤 한때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아동문학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김영일은 이원수와 문학사회 조직에서는 날카롭게 맞서는 듯싶었다. 그런데 달리 두 사람은 통음을 하면서 가까웠다. 이원수의 부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제서야 그 까닭을 짐작할 만하다고 탄식하듯 내게 말했던 이가 평론가 이광호의 아버지 이재철이었다. 광복기 좌파 조직으로 몸을 숨겼던 이원수는 정세 악화로 월북하기 위해 서울을 떠났다. 그러다 사리원에서 돌아왔다. 같이 갔던 최병화만 폭격으로 죽었다. 서울 수복 뒤 이원수가 인민군 부역 혐의를 받았을 때, 그 명예를 벗도록 보증을 서 준 사람이 김영일이었다. 같은 범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절친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올린 동시를 김영일의 아들에게 읽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1950년 경인년전쟁이 벌어지자 유치환은 중군 시집 『보병과 더부러』(1951)를 냈다. 김영일 또한 방공 애국주의를 대표하는 어린이문학가로서 통영 윤이상과 함께 재빨리 전시 초등 음악 교과서 격인 동요집 『소년 기마대』(1952)를

폈다. 만주국에서 ‘협화’, ‘개척 공작’ 앞자리에서 밀정 노릇을 했던 류치환과 만주국 부왜 경찰 김영일은 경인년전쟁기, 여느 문인들과 달리 굳이 날책으로 반공시, 애국시를 묶어내는 드문 본보기를 자랑했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먼 듯하나 사실은 매우 가까웠다. 뒷날 그러한 류치환을 기리는 청마문학관이 서고, 황해도 월남 문학인 김영일의 아들이 거제, 통영을 대표하는 동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뿌리를 내려 공공 화장실에 작품을 선뵈 일이 그럴듯하지 않는가.

류치환이 통영을 떠나게 된 동기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지사형 도피가 아니라 말 못 할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내 논지는 짐작대로 반발을 샀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나아간다면 쉬 알 만한 사실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 -(줄임)- 만주국으로 올라간 1940년 앞뒤 시기, 살벌한 싸움터 북만주까지 ‘제국’의 ‘개척민’으로서 들어 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친일’ 성향의 됴됨이가 아니면 꿈꾸기 어려웠다. 미리 통영경찰서뿐 아니라 ‘조선 총독부’의 심사와 허가, 학습까지 거쳐야 하는 일. 그러니 왜로 관헌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류치환이 만주로 들어갔으리라는 지사형 도피설은 그 전제에서부터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는 쉬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통영을 서둘러 떠나게 된 개인 사정이라는 것도 단순한 여자 문제였다면 굳이 내가 글에서 밝히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그런 일이라면 류치환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터. 여느 문인과 달리 여자 관계가 오히려 대중적 명성을 얻는 데 빌미가 된 그 아닌가. 내놓고 밝히기 힘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개인 사정이라는 게 여자 문제일 터인데 무에 대단한 일인 양 밝히지 않느냐고 채근이었다.

-「만주국과 통영 사이-김영일의 부왜 동시 한 편」 가운데서

2008년 8월, 나는 다시 한 번 류치환의 부왜 시비와 관련해 글을 썼다. 류치환의 부왜 작품 가운데서 네 편에 대한 풀이를 두고 『경남도민일보』에서 마련한, 정과리와 나 사이 지상 논쟁의 마무리 자리였다. 기획 이름은 ‘류치환 탄생 100주년, 가시지 않은 친일시 논란 작품을 논한다’였다. 시「수」, 「전야」, 「북두성」, 그리고 줄글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가 대상이었다. 내가 이미 썼던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의 해당 논지 자리를 이일균 기자가 따고, 그에 대한 정과리의 반론을 나란히 신는 방식이었다. 네 차례에 나누어 글이 실린 뒤 ‘재반론’ 형식으로 나는 「류치환, 역사적 허위와 문학적 과장 위에 떠 있는 이름」을 내놓았다.

글쓴이의 지난 해 발표 논문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를 두고 쓴 정과리 교수의 반론(『경남도민일보』8. 11.~14.)을 읽었다. 그것이 지닌 핵심 문제는 둘이다. 첫째, 작품 바깥쪽으로 류치환이 왜로 관헌에 쫓길 만한 민족지사적 면모를 지닌 이라는 고정관념. 그의 부왜 작품은 “강요된 협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리라는 한결같은 전제가 거기서 비롯한다. 둘째, 작품 안쪽으로 류치환이 그러한 상황을 빚겨가기 위한 나름의 저항 흔적을 보여준다는 믿음. 그의 부왜 시문에 대한 반론자의 거듭된 오독은 거기에 뿌리를 둔다

-(줄임)-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도 반론자는 “강요된 협력”에 따른 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될성부르다 해도 류치환과 같은 이에게 걸릴 일은 아니다. 이념 차원이건 행위 차원이건 항왜 활동을 하다 박해를 받았던 이가 1940년을 앞뒤로 한 시기에 남긴 부왜 활동에 대한 평가에나 걸릴 일이다. 한국 계급주의 연극의 성장, 해체까지 온몸으로 감당하며 세 차례에 걸쳐 세 해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갓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지난 4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부왜문인 명단에 애꿎게 이름이 오른 언양의 신고송과 같은 이가 좋은 본보기

다. 광복 뒤 월북했던 탓에 유력한 후손이 남쪽에 남아 있지 않은 까닭인가.

류치환의 부왜시문 네 편은 자발적인 부왜의식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를 처음으로 체제 헌신을 향한 우월적 과시(수)와 체제 복무의 당당한 만족감(전야), 그리고 패망 직전 만주국을 서둘러 빠져 나오게 했을 스산했던 마음자리까지 담아낸(복두성) 궤적이 그것이다. 역사에는 기억하기 위한 역사도 있고, 숨기기 위한 역사도 있다. 오늘날 류치환이 누리고 있는 명성은 광복 뒤 꾸준히 숨기기 위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결과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그에 대한 역사적 허위와 사회적 건망증에 갇혀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류치환, 역사적 허위와 문학적 과장 위에 떠 있는 이름」 가운데서

이 글을 쓰면서 오래 꽃아 두었던 류치환 부왜 관련 문서첩을 꺼집어냈다. 모두 세 개다. 1번에 경남 거제시 ‘동량·청마기념사업회’에서 낸 회보 창간호가 들었다. 1999년 3월 30일에 낸 팸플릿 꼴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지부 안에 있다고 썼는데 회장이 이영호다. 앞머리에 “연극계의 대부 동량 유치진 님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과 “시단의 거성 청마 류치환 님의 생명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표로 삼는다고 썼다. 「회원명부」에 자문위원을 맨 위에 올렸다. 거기 문학예술계 사람으로서 문덕수·성춘복·차범석·류덕형이 보인다. 류덕형은 류치진의 아들이다. 그리고 류치환의 딸 유인전도 함께 「이사 명단」에 올랐다. 문인으로서 서울 오세영·김해석, 부산 이석·박철석·김석규·남송우, 대구 이하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하석 시인은 뜻밖이다.

을유광복 뒤 류치환은 이념 갈등과 좌파 시인에 대한 차별, 폭력, 월북 속에서 다른 여느 만주국 출신 인사와 마찬가지로 민족, 애족 인사인 양 변신에 성공했다. 이즈음 나는 소설 쪽에서 만주국의 드물었던 우리 겨레 고등관



『동랑·청마기념사업회 회보』 창간호

우면하면서 시대를 탔다. 부산에서는 만주국 관료 출신인 진주 탁창덕, 동래 염주용과 함께 삼남문학회를 만들었다. 만주국 체류가 공통인 문학인 모임이었다. 그러면서 1946년 3월, 한국청년문학가협회 회장으로 나서 시의 ‘거장’으로 명성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집 『생명의 서』(행문사, 1947) 광고에 ‘보라! 조선시인상을 획득한 우리 민족시의 거장 청마의 시집’이라 한 것¹⁵이 그 무렵 분위기를 잘 알려 준다. 30대 후반의 새파란 류치환을 두고 “민족시의 거장”이라 썼다.

출신 관료 소설가 한찬숙의 경우를 알렸다. 을유광복 뒤, 왜로성이름으로 갈아치웠던 이름에서 다시 한찬숙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한찬석으로 바뀌어 미군정청 농림부 간부로 재등장한 것이다. 만주국 소설 연구자들이 버릇처럼 꺼내는 소설집 『썩트는 대지』(만선일보출판사, 1941)에 부와 소설을 실은 한찬숙이 그이다. 이름 바꾸기도 성공적인 변신 방식이었다.¹⁴ 류치환은 통영, 부산을 오가며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무슨 대단한 ‘주의자’나 되는 양, 하기락과 같은 먹물 아나키스트에 얽혀 좌고

14 박태일, 「광복기 함천군수 한찬석 문필의 내력」, 『한국지역문학연구』 27집, 한국지역문학회, 2025, 100~245쪽.
 15 『죽순』 제5집, 태평출판사, 1947, 표2 광고.

얼마라도 빛나고 좋은 시인들이 있을 수 있는 나와 같은 연대에 있어서 혹은 요절하거나 또는 문학과 결별하므로서, 더군다나 해방 후의 불행한 분열로 말미암아 허다한 좋은 시인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므로서, 박토로 된 시단에 귀보리인 내가 보리 값을 얻은 하나이리라.

- 류치환, 『『청마시초』 무렵』 가운데서¹⁶

류치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말한 자리다. 쌀은커녕 보리 축에도 들지 못할 처지에 ‘대가’, ‘거장’ 대접을 받은 이로서 입에 걸린 검양이라 하더라도, 말인즉 사실이다. 2010년부터 거제의 류치진·류치환기념사업회에서는 만주국 땅인 연변 지역 우리 재중겨레사회에 가서 부왜 시인 류치환이라는 이름을 세탁하기 위해 잔피를 썼다. 연변 문학답사와 백일장, 문학상 시상과 같은 연관 행사를 벌인 것이다. 그것을 보다 못한 연변 겨레 소설가 김송죽이 일갈했다.

청마 류치환의 문학은 그 본신의 신분과 걸맞게 철두철미한 한간문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인을 기념하고 있다. 도대체 기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념하겠거든 한국에서나 소리없이 할 게지 중국땅 만주(동북)에 들여다 부덕 부덕 할 건 뭐가? 동북-이 땅은 항일의 봉화가 타올랐던 곳이요 지금도 곳곳에 렬사 비석들이 있어서 후대들에게 역사를 잊지 않게끔 교육하고 있다.

한국의 청마문학관에게 묻고 싶다. 류치환이 그리 좋아서 기념하겠거든 한국에서나 할 게지 왜 중국에는 부덕부덕 끌어들이는가? 그 목적, 그 야심이 대체 무언지 의심스럽다. 결코 좋은 행실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당신들은 그래 중국에서 자라나는 민족 후대들의 교육을 망그러 놓을 건가? 형클어 놓

16 『나는 고독하지 않다』, 평화사, 1963, 134쪽.

을 건가? 그렇다면 체면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량심 없는 것이니 그러지 말고 당장 거둬치우라.

그리고 대중의 여론도 불사하고 기념행사를 부덕부덕 행사하려는 ‘연변 동북아연구원’측도 그렇다. 내가 그러는 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번 경축 모임에 응모하려는 사람도 반드시 한번 다시 실황을 알아보고 속고해 보기 바란다, 평생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려거든!

- 김송죽, 「류치환은 어떤 사람인가?」 가운데서¹⁷

‘한간문학’이란 중국에서 일컫는 ‘부왜문학’이다. 2010년 5월 제1회 ‘청마 북만주문학기행’을 시작으로 2012년 5월에 ‘연변 제1회청마백일장’을 열고 ‘7월에 제2회’연변청마문학상‘을 주었다. 그런 짓거리를 만주에서까지 가서 벌이니 참다못해 김송죽이 질타를 한 것이다. 부왜시「수」가 수작이라는 글을 쓴 최룡관 — 그 무렵 연변동북아연구원이라는 곳의 원장이었다 — 에게 연구상을 주고 받들고 고마워했을 것이니 가관이다. 김송죽에 이어 연변 대학교 김관용 교수가 부왜시「수」에서 류치환의 잔인하고도 반생명적인 가학과 증오를 받으며, 거리에서 목 잘린 채 매달려 있었던 그 ‘비적’이 반만항 왜 장군 조상지였음을 실증하는 글을 발표했다.¹⁸

이 글을 쓰면서 청마기념사업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았다. 이른바 청마문학제에서 연구상을 주는 사실은 알았다. 김윤식·김종길에게 문학상을 준 것으로 어렵פות이 알고 있었던 일이다. 이참에 보니 연구상을 꾸준히 시상했다. 이세봄·김종태를 이어 2013년에 박진희, 2014년에 성은혜, 2015년에 오

17 「류치환은 어떤 사람인가?」, 『연변 모이자』(<http://www.zoglo.net/blog/jinsongzhu>), 2013. 3. 27.

18 김관용, 「청마 류치환의 친일문학 소론」, 『연변 모이자』(<http://yanbian.moyiza.com>), 2013. 5. 11.

양호가 받았다. 누구보다 만주 지역문학에 공을 들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양호다. 만주 지역 역사 이해가 바탕부터 잘못 들어섰음을 만년에까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송희복·조동범과 같은 사람이 받았다, 흥미롭다. 조동범은 함양 출신 이진언을 아나키스트 시인인 양 떠받들어 내가 바로잡는 글¹⁹을 내놓은 바도 있다. 함양 아나키스트 모임을 대단한 양 부풀린 하기락의 농간에 즐겨 었힌 결과다. 그런 글을 쓰도록 내게 청탁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진주교대 경남문화연구소 일원인 송희복이었다.

2017년에는 ‘동량·청마기념사업회’를 ‘청마기념사업회’로 바꾸었다. 류치진을 빼는 것으로 세탁을 한 셈이다. 2018년에는 손남훈이 ‘청마문학연구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또한 뜻밖이다. ‘최우수’임에도 상금으로 60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도 살림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019년까지 이른바 청마북만주백일장과 만주 문학기행을 거듭한 것으로 누리집은 적었다. 「청마기념사업회 연혁(1996-2021)」으로 보면 만주 기행과 연변 지역 노닥질은 꾸준했다. 물론 그 뒷돈은 거제 시민들의 세금임에 틀림없다.

그러는 사이 나는 통영에 들릴 일이 없었다. 하지만 통영 지역 관련 일은 거듭 이어졌다. 2015년에는 그동안 썼던 류치환과 이원수 논의를 묶어 날책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소명출판, 2015)으로 폈다.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의 세 번째 성과였다. 책 출판과 맞물려 『교수신문』에서는 ‘텍스트로 읽는 신간’에서 「역사적 허위와 문학적 과장, 그 진실의 얼굴을 찾아서」로 류치환 부분을 각별히 떼서 소개해 주었다. 그 담당이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최익현 기자다. 기사가 나간 몇 달 뒤 서울 모대학 젊은 교수의 류치환론을 읽고 최 기자가 노기를 띤 연락을 내게 주었다. 이미 『유치환

19 박태일, 「함양 지역문학과 시인 이진언」, 『경남권문화』 제26호, 진주교육대학 경남권문화연구소, 2018, 151~201쪽.

과 이원수의 부왜문학』의 속살을 아는 터에 그 교수의 논지를 참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마침 나는 중국 장춘, 곧 만주국 시기 서울인 신경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장춘과 관련된 류치환 부왜시「수」의 실체를 더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 기자에게 주는 답신 꼴의 줄글을 『국제신문』에 올렸다.

최 형. 답신을 드린 지 세 주가 지났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쓴 글을 읽고 보내 주신 노기 띤 전자편지였습니다. 류치환 문학에 대해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한 저의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첨예한 논쟁을 피해 가면서 현학만을 되풀이했다는 판단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제 오늘 학계의 인습이 아닐 뿐더러 그 한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어서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그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글과 생각을 비껴간 정도가 아니라, 특정 핵심 자리에서는 제 생각의 속살을 자기 식의 현란한 표현으로 바꾼 뒤 자기 것인 양 끌어다 썼던 까닭입니다. 표절이라 할 수는 없으되 도용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말씨는 왜 그리 일본식 번역투를 즐기는지. 마침 저는「수」와 관련이 있는 옛 만주국 서울 신경, 곧 장춘에 논문 발표를 위해 와 있습니다.

류치환이「수」에서 한껏 꾸짖고 능멸했던 동북항왜연합군 총사령 조상지 장군의 머리뼈를 찾은 곳이 바로 이곳 반약사 뒤뜰입니다. 2004년 일이었습니다. 1908년 요령성 조양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장군은 17살에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옥살이를 겪고, 1931년 왜로가 본격적인 만주 침략을 피하자 의용군으로 참가했습니다. 1933년부터는 할빈 동쪽 주하에서 주하동 북반왜유격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장군은 그것을 뒷날 동북항왜연합군 제3군으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왜로와 싸움에서는 타협을 몰랐던 장군입니다. 두 차례나 당적을 빼앗기면서

북만의 대표 항왜 투사로 우뚝 섰습니다. 왜로는 항왜반만군과 일반민 사이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군량미 공급을 위해 북만에 이른바 집단부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부터 흩어져 있던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유격 근거지를 무인구로 바꾸는 꾀를 쓴 것입니다.

류치환이 씻을 길 없을 잘못을 저질러 고향을 쫓겨나듯 떠나 농장 관리인 이자 협화회 간부로 처음 짐을 푼 곳이 연수현 가신촌입니다. 이른바 토벌 중점 지역에 마련된 집단부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군은 1934년에 이어 1938년에 다시 시작된 이른바 대토벌로 밀영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소련으로 건너갔다 오히려 1년 6개월 꿈쩍없이 감금되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 흑룡강을 건너 북만으로 들어섰던 장군은 석 달 만에 밀정의 꾀에 빠져 사살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1942년 2월 12일. 서른네 살 푸른 새벽이었습니다. 왜로는 장군의 머리를 작두로 자르고 몸은 송화강에 던졌습니다. 류치환이 장군을 만난 때가 그 무렵입니다. 머리만 내걸린 ‘대비적 우두머리’ 조상지 장군을 한껏 능멸하는 「수」를 써, 그것을 다음 달 『국민문학』에 실었습니다. 『만선일보』에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를 보내 왜왕을 향한 충성을 새삼스레 다짐한 직후 일입니다.

광복 뒤 1946년, 장군이 항왜 투쟁의 첫 유격대를 만들었던 주하현에서는 그를 기려 이름을 상지현(오늘날 상지시)으로 바꾸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장군의 삶이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에서는 당적 회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군의 머리뼈를 반약사 뒤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만주국 ‘호국’ 사찰이었던 곳입니다.

류치환은 광복 두 달을 앞두고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협화회 밀정 활동 탓에 처단 받을 것이 분명했던 까닭입니다. 만주국에서부터 익은 애

국과 반공의 깃발을 고국에서 다시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인이 박힌 악습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1963년에는 「수」가 부웨이시인이 문학사에서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술 취한 머리를 차바퀴로 밀어 넣는 비참을 겪은 때는 네 해 뒤인 1967년입니다.

같은 해 태어나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같은 하늘과 땅을 누리며 살았으나, 삶은 너무나 맞서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하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류치환은 하찮은 삶에 하찮은 문학을 놀다 간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자신의 지난 잘못은 바로잡고 나온 점은 더욱 키워 삶을 드높이는 길과는 거꾸로 살다 간 이가 그였습니다. 삶이 하찮으니 그 글이 하찮고, 글이 부끄러우니 그 삶이 더욱 하찮아지는 이치입니다.

아마 류치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얼빠진 문학 취향이 바로 잡히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긴 세월 다져진 결과인 까닭입니다. 오늘도 반약사 앞길에 차들은 끊임 없고 노점상들은 기념품 팔이에 눈빛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너른 장춘의 밤자락이 어디서 그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쯤 환한 새벽이 무릎을 펴며 천천히 일어설 것을 저는 압니다. 최 형, 다시 볼 때까지 건안하시길 빌어드립니다.

-「류치환의 부웨이 「수」와 조상지 장군」

짧은 칼럼이지만 그 안에다 대중적으로 잘못 알려진 몇 가지를 바루는 정보를 더했다. 첫째, “류치환이 씻을 길 없을 잘못을 저질러 고향을 쫓겨나듯 떠나”로 표현한 통영 도주설이 하나다. 둘째, “젊은 시절부터 인이 박힌 악습”이 그것이다. 플라토닉으로 꾸며진, 반복적인 성적 취향의 다른 표현이다. 셋째, 차에 치인 사고사로 알려진, 죽음에 대한 참이다. 류치환을 이른바 ‘대가’, ‘거장’이라 보는 이들에게는 노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류치환은 하찮은 삶에 하찮은 문

학을 놓다 간 사람임을” 일깨운다는 사실. “자신의 지난 잘못은 바로잡고 나
 은 점은 더욱 키워 삶을 드높이는 길과는 거꾸로 살다 간 이가” 류치환이었
 다. 그때 내가 지냈던, “삶이 하찮으니 그 글이 하찮고, 글이 부끄러우니 그
 삶이 더욱 하찮”다는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달라짐이 없다. 거기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류치환의 삶과 문학을 싸안고 있는 둘레 환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드디어 풀리는 계기를 얻은 이즈음이니 더욱 그렇다.

3. 류치표의 실증과 다시 통영 걸음

2009년 이후 지난해 2025년 해끝까지, 16년 동안이나 드나들 일이 없었
 던 통영이었다. 그런데 이즈음 그런 통영을 들리는 기회가 찾아졌다. 그 처
 음이 미륵섬에서 2025년 11월 1일에 열린 제2회 김천손마라톤대회 참가다.
 박경리기념관에서 출발하여 미륵섬을 돌아 오는 10킬로미터 소규모 산길달
 리기대회였다. 거기다 2026년 1월에는 류치환의 생가라고 다듬어 놓은 거제
 둔덕 방하리도 지나쳤다. 류치환 시비와 시화천을 곳곳에 펼럭펼럭 내건 곳
 이다. 거제섬 다른 곳은 한 해에도 몇 차례 한길이나 산길달리기대회 참가를
 위해 들렀다. 그러나 둔덕 쪽은 기회가
 없었다. 산길로는 계룡산과 영산, 노
 자산, 가라산에서 자주 산길달리기대
 회가 열린다. 둔덕 방하리가 끼인 산방
 산 쪽은 대회가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
 도 갈 생각을 냈을까. 일찍이 30대, 시
 「폐왕을 위하여 1」의 글감이 된 거제 둔
 덕기성에 오르면서 지나쳤던 방하리



산방산산길달리기대회 결승점에서

다. 그 뒤로는 걸음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첫 산길달리기대회 참가를 위해 거제 둔덕을 즐겁게 다녀온 것이다.

새로운 변화다. 거기다 3월 최정규 통영문학관 방문까지. 그런데 이렇듯 지난해 말부터 통영과 거제 류치환 유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오랫동안 흐릿했던, 류치환의 삶을 풀 열쇠 하나를 쥔 덕분이다. 바로 류치환의 누이 류치표가 북한에서 살았다는 실증이다. 이제까지 류치환의 통영 탈향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일거리가 그것이었다. 그미는 배화여고를 나온 인재다. 그런데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으로 되돌아와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마침내 월북했다. 누이의 친정 귀가는 류치환의 만주국 도주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월북 사실은 풍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기록 속에서 류치표의 실재를 찾을 수 없었다. 통영 지역사회 류치표 지인들과 면담 구술을 빌려 뜻밖의 친정 귀가와 두문불출의 이유, 월북에 관해서는 일찍이 확인을 마친 뒤다. 그럼에도 북한 안쪽의 구체적인 실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간 경남·부산 지역 월북 문학인」²⁰을 쓸 때에도 이름을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이즈음 재북 시기 신불출론²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북한 최창호가 쓴 『민족 수난기의 연극 2』(평양출판사, 2002)에서 류치표 항목을 찾은 것이다. 5장 ‘사진을 통해 본 오랜 연극인들’ 가운데 한 자리였다.

① 누이 치표는 1921년 1월 2일에 출생하여 북한에 있는데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²²

20 『국제신문』, 국제신문사, 2016. 11. 9.

21 박태일, 「재북 시기 신불출 행적 간동거리기」, 『근대서지』 31집, 근대서지학회, 2025, 189~343쪽.

22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엮음, 「류치환」, 『새 자료조사를 통한 한국작가전기연구(하)』, 동화출판공사, 1980, 31쪽.

②1921년 12월 4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출생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배화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43년 서울현대극장에서 리서향 작 <봄밤에 온 사나이>, 함세덕 작 <황해>에 출연하여 좋은 연기를 보여 주었다.

그 후 김승구 작 <로너부인의 행상기>에 출연하여 연기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 연극들에 출연하면서 친일의 길로 나가는 오빠 류치진과 다른 길, 민족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였다.

광복 후 1946년 오빠 류치진이 친미의 길, 반공의 길로 나서자 그와 결별하고 공화국복반부로 입북하였다.

입북 후 오늘의 국립연극단의 전신인 국립연극극장 배우로 입직하여 연극 <퇴성>과 한태천 작들인 <30년만의 외출>, <바우>에 출연하였다.

-(졸임)-

그는 신입배우들의 연기지도와 신인육성을 책임지고 사업하였으며 군중 예술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소조지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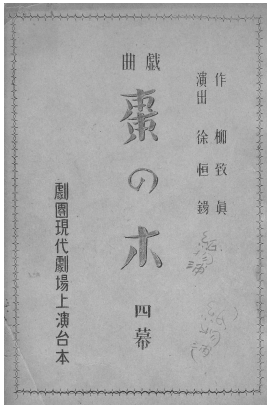
그가 공장과 가두, 농촌들에 나가 예술소조를 지도한 회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현재 80고령이 되었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청춘의 기백을 안고 신인 육성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람 있게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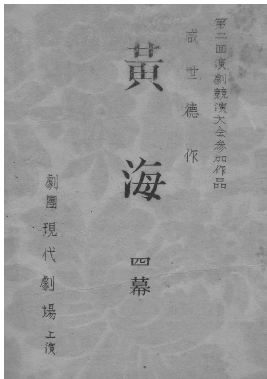
-「류치표」 가운데서²³

23 최창호, 『민족 수난기의 연극 2』, 평양출판사, 2002, 285~287쪽.

①은 우리 쪽에 일찍부터 알려진 류치표에 관한 정보다. “1921년 1월 2일
에 출생”했고, “북한에 있는데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썼다. ②가 북한
최창호에서 옮긴 글이다. 태어난 날을 12월 4일로 적었다. 우리 쪽과 차이가
진다. 최창호를 그대로 따른다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배화고등학교



제1회 ‘연극경연대회’(1942)
참가작인 류치진의 부왜극
<대추나무> 대본



제2회 ‘연극경연대회’(1943)
참가작인 함세덕 부왜극
<황해> 대본

교에 이어 서울여자사범학교를 다녔다. 배화여
고를 나온 것은 알려져 있으나 서울, 곧 경성여자
사범학교 수학은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처음 연
극계에 발을 내디뎠던 곳은 오라버니 유치진이
이끈 현대극장이었다. 이른바 조선총독부에서
피했던 부왜 국민극 행사인 제2회 연극경연대회
수상작 <황해>에 출연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친일의 길로 나가는
오빠 류치진과 다른 길, 민족을 중시하는 진보적
인 길을 걸으리라 결심”했다는 기술과 맞서는 까
닭이다. 그리고 류치표의 월북 동기를 “광복 후
1946년 오빠 류치진이 친미의 길, 반공의 길로 나
서자 그와 결별”하기 위한 결단인 것처럼 밝혔
다. 말하자면 월북 뒤, 남한 연극사회의 유력 인
사 류치진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늠자로서 류치표
의 위상이 북한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었다는 사
실을 짐작할 수 있다.

최창호에 따르면 류치표는 월북 뒤, 국립연극
극장 배우로, 또는 연기 지도자로서 개성이나 량
강도와 같은 곳까지 옮겨 다녔다. 연륜이 쌓인 뒤
에는 “신입배우들의 연기지도와 신인육성을 책

임지고 사업하였으며 군중예술”의 발전을 위해 ‘예술소조지도사업’에 오래 일했다. 그리하여 2002년 현재 류치표는 ‘80고령’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 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2002년까지 생존이 확인된 셈이다. 그리하여 최창호의 「류치표」를 빌미로 류치표의 1차 기록까지 찾을 수 있었다. 1967년 『조선예술』에 쓴 ‘연기안」 「연극 『북극성』의 황씨역」이 그것이다. 월북한 류치표의 실제와 활동을 확연하게 실증할 수 있는 터무니였다.

그런데 지난 달 류치표에 관한 새 정보를 더할 수 있었다. 4월 29일 한상 언영화연구소 한상언 대표와 전언을 주받는 자리였다. 역저 『천리마 북한영화』(한상언영화연구소, 2026)를 받고 축하와 고마움을 전하는 김에 류치표에 관해 말을 꺼냈다. 연극마당에 있었던 류치표다. 북한 영화사회 활동도 가능했으리라 여긴 까닭이다. 북한 『조선영화』의 목차까지 마련하기도 한 북한 영화 전문가가 한상언이다. 류치표에 관해 물을 수 있을 적임자였다. 예상대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뜻밖에 우리 쪽 유민영의 저술에 류치표가 배용의 아내라는 기록이 이미 있음을 알려 주었다. 배용이라면 초기 북한 연극 영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을 사람이다. 류치표가 그이 아내였다면 월북과 재북 시기 생활에 관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게 된 셈이다. 1960년대 북한 중앙에서 남한 예술사회의 류치진을 관리하기 위한 가늠자로서 류치표를 한시적으로 활용했으리라고 생각했던 내 짐작에 틀이 생기게 된 셈이다.

한 대표는 거기다 친절하게 유민영의 『한국 연극의 아버지 동량 유치진』(태학사, 2015) 해당 부분을 알려 주었다. 한참 근대문학사를 공부할 젊은 무렵, 서연호와 달리 유민영의 한국 연극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뜩찮았다. 그 뒤로 무겁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연구자다. 그런 유민영이었으나 류치진 부분에서는 꼼꼼한 데가 있었다. 물론 류치진을 “한국 연극의 아버지”라 평가한 잘못에는 달라짐이 없었다. 한번 모로 박힌 못은 오갈 데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유민영은 문덕수가 내놓은 『청마유치환평전』(시문학사, 2004)의 류치환 가족 정보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월북 뒤 ‘행방불명’이 유민영에서 ‘배용의 아내’라는 행적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러나 유민영에서도 밝히지 않은 게 있다. 류치표가 배용의 아내였다면 배용과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 관계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류치표는 거제 출신 금융계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나 살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통영 역내에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을 문덕수나 유민영은 몰랐던 것일까.

그런데 류치표가 배용의 아내라는 유민영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물음이 생긴다. 왜 최창호에서는 그런 사실을 적지 않았던 것일까. 혹 배용이 공론장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을, 북한에서 제거된 연극인이었던 까닭일까? 그렇지 않다면 최창호에 배용의 아내라는 사실이 빠진 점으로 보아 유민영의 기록이 잘못일 수도 있다.²⁴ 어쨌든 이제부터 경남·부산 지역 월북 문학예술인에 실체가 드러난 류치표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류치표가 배용의 아내였다는 기록이 참이라면 배용의 발자취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말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평북 용강 출신 배용의 평양 귀복과 재북 시기 행적은 많은 곳에서 류치표와 나란할 터인 때문이다.

배용은 광복 뒤 서울에서 연극 활동을 하다가 1948년도 북으로 돌아가 평양의 중앙예술공작단, 국립극장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국립극장 총장을 맡기도 했다. 이 기간 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선이 굵은 남성적인 연극을 잘 했고, 북한 연극지에서 일정한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²⁵ 그 점은 그이를 북한

24 류치표의 초혼과 파탄, 거기다 배용과 같은 주요 연극인과 동행 월북이라는 두 사실이 류치환 유족이나 유민영에게 교차로 기억 재구성되어 배용과 혼인이라는 정보로 굳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류치표의 월북이 갖는 무게를 더하기 위한 의식/무의식적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북한에서 확인되는 배용의 행적과 류치표의 행적은, 한 거처에서 사는 내외 사이라면 드러나기 힘들 서로 다른 즐거리를 보여 준다.

25 「배용」, 『북한정보넷』(<http://www.cybernk.net>)

에서 인민배우이자 공훈배우로 포상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배용이 국립 극장 총장까지 맡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울산 극작가 신고송이나 무대에 술가인 마산 강호, 부산 김일영과 같은, 경남·부산 지역 월북 무대예술인들과 유다른 교분을 쌓았을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배용이 귀북했을 때, 아내 류치표가 함께했다면 그미 월북 시기 또한 배용과 같이 1948년일 것이 틀림 없다.²⁶ 그리고 이 시기는 류치환의 양자 ‘문성’이 죽었다고 호적이 기록한 시기와 맞물린다.

류치환의 가계나 해적이에 관해 가장 꼼꼼하게 밝힌 이는 문덕수다. 물론 “1940년(32세) 3월,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북 만주로 이주하다”고 풀이하고 그 다음,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 ‘탈출’이라 썼다. 허황된 미화다. 이어서 문덕수는 1940년 “7월 16일, 차남 문성이 출생하다.” “11월 15일, 장남 일향이 만주국 빈강성 연수현 유신구 2호에서 사망하다. 시 「6년 후」(『생명의 서』에 수록)는 일향의 죽음을 읊은 작품이다”라 썼다. 그대로 따르면 류치환의 적자로서 장남인 일향이 태어나고 차남인 양자 문성이 태어났다. 류치환의 귀국을 두고서는 1945년 “6월, 일본의 패전을 미리 알기나 한 것처럼, 아내의 권유로 가족을 거느리고 북만주에서 귀국하다”라 적었다.²⁷ “패전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반만항왜군에게 ‘한 간’, 곧 부왜배로 몰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류치환의 서두른 만주 탈출을 두고 아름답게 꾸몄다.

일향과 문성을 아울러 류치환의 호적에는 5명의 자녀가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서 일향은 류치환이 아내 권재순이 아니라 다른 부산 여자의 몸에

26 류치표는 1950년 경인년전쟁기 통영이 잠시 인민군 손에 떨어졌을 때, 장교 복장을 입고 통영에 나타났다는 지역 지인의 구술이 있다. 그에 따르면, 1950년 6월에 앞서 류치표가 월북한 것은 확실하다.

27 문덕수, 「부록」, 『청마유치환평전』, 시문학사, 2004, 324-325쪽.

서 얻은 아이다. 통영 출신 평론가 박철석에 따르면 그미는 기녀였다. 류치환은 서울에서 이른바 조선총독부에서 피한 ‘개척농장’ 관리인 교육을 다 받고, 첫 시집 『생명의 서』 출판 기념회까지 마친 뒤 바로 술가하여 만주로 떠났다. 1940년 4월이었다. 그때 류치환은 부산에서 일향의 어머니로부터 일향을 받아 함께 만주로 올라갔다. 일향은 만주에서 그 해 11월에 죽었다. 류치환의 두 번째 아들이 양자 문성이다. 그 아이는 류치환이 만주로 달아난 넉 달 뒤인 1940년 7월에 났다.

청마의 호적부에는 두 아들의 이름이 보인다. 장남 유일향(柳日向, 1935. 10. 1~1940. 11. 15)은 부산(부산시 초량동 1000)에서 출생했고, 만주(만주국 빈강성 연수현 유신구 2호)에서 사망했다. 차남 유문성(柳文星, 1940. 7. 16~1948. 12. 7)은 호적부에 의하면 만주(만주국 빈강성 연수현 가신촌 정양가 5호)에서 출생했고, 부산(부산시 중구 영주동 287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작가전기연구(하)』에는 유문성에 대하여 “실은 양자로 데려온 것인데 현재는 행방을 모른다”고 적혀 있다.²⁸

문덕수는 문성에 관해 앞선,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의 조사를 그대로 옮겨 놓는데 그쳤다. 먼저 주의 깊게 볼 일은 두 아들과 먼저 난 딸들 사이 출산 시기 차이다. 통영 출신 평론가 김성옥과 혼인했던 장녀 인전이 1929년, 차녀 춘비가 1931년, 그리고 3녀 자연은 1932년 출생이다. 이들 모두 통영에서 났고, 1940년 만주로 갈 때는 어린 나이임에도 시근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다. 문성은 3녀 자연을 본 5년 뒤에 태어났다. 앞의 딸들과 터울이 많이 진다. 그런데 문덕수는 호적에 1940년 7월 출생, 1948년 12월 사망으로 기록된

28 문덕수, 위의 책, 36~37쪽.

문성에 대해, 호적에 따른 죽음 사실을 확증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현재는 행방을 모른다”라 적은 이화여대 조사진의, 지나간 옛 기록 쪽을 따랐다. 거기다 류치환의 딸들도 아래 남자 동생들에 관해 꼼꼼한 기억을 내놓지 않았다. 누구보다 류치환의 생존 가족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웠을 문덕수다. 그리고 그의 『청마유치환평전』은 류치환의 부왜 문학 시시비비를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류치환을 변호하고 상찬하기 위한 뜻에서 마련된 책이다.

문덕수는 1956년 『현대문학』에서 류치환의 추천으로 문학사회에 나섰다. 『청마유치환평전』에다 굳이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어찌 류치환에 대해 중립적이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저 소리 없는
청산이며 바위의 아우성은
네가 다 들어버렸기 때문이란다.

겹겹 메아리로 울려 돌아가는
정적 속

- 문덕수, 「침묵」 가운데서²⁹

아직도
불러줄 이름 없는 아우성이
내 심장(心腸)을 굵이쳐 울리고 있다.

29 현대문학사 엮음, 『추천시집』, 오리문화사, 1958, 109쪽.

그것은
아득한 원시(原始)의 혈연(血緣)에
미처 촉광(燭光)하지 못한 무수한
맥박(脈搏)의 진동(震動)……

- 문덕수, 「침묵(沈默) II」 가운데서³⁰

경남 울산 김기오의 출판자본에 함안 조연현이 전권을 갖고 냈던 매체가 『현대문학』이다. 거기 초기 추천위원 류치환이 오롯이 2회 추천을 맡아 시문학사회로 내보낸 이는 셋이다. 어릴 적부터 통영의 절친한 벗이면서 만주국 시절 같은 연수현 지역에서 교사로 일했던 최두춘, 삼천포 박재삼, 함안 문덕수. 모두 경남 연고를 지닌 사람이다. 최두춘은 류치환과 떼려야 뗄 수 없을 관계로 이어진 사람이다. 류치환의 만주국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다. 함양 안의중학교 교장직을 마치고 류치환이 대구로 떠날 때 자기 뒷자리를 넘긴 이도 최두춘이었다. 이들 세 사람 말고 류치환이 공동 추천한 이는 마산의 이석, 충남 당진의 이종학이었다. 문덕수로서는 자기 문학의 출범과 전개에 누구보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이가 류치환이다. 위에 옮긴 문덕수의 시 추천작에서부터 드러내놓고 류치환에 기울어진 모습이 완연하다. 뜬금없는 '바위' '목소리'의 강조가 그것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의 변형이다. 추천작 「침묵」, 「화석」, 「바람속에서」, 「침묵 II」가 거의 그렇다.

그렇듯 밀착된 문덕수였으니 류치환에 불리하리라 여겨지거나, 부정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았을 것이 뻔하다. 기록의 참, 거짓을 묻는 일이 어렵다. 읽은이들이 제시 정보들을 조심스레 뜯어 읽어야 할 마련이다. 그리하니 류치환의 두 아들에 관한 정보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얼버

30 현대문학사 엮음, 위의 책, 113쪽.

무렸을 가능성이 크다. 문덕수가 볼 때, 문성이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올라 있다. 그렇더라도 그냥 죽었다는 호적 기록에 따라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점이 사실이 아님을 문덕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그냥 목살할 수는 더욱 없었다. 그러했으니 다른 터무니에다 사실을 맡기고 넘어가는 방식을 찾은 것이다.

호적에 따르면 문성은 1940년 7월 만주에서 태어났고, 1948년에 죽었다. 1940년 4월 만주로 올라간 류치환이다. 문성이 7월 출생이라면 아내 권재순이 임신한 지 거의 6-7개월 몸이라는 뜻이다. 2007년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를 쓸 때만 해도 나는 문성이 류치환의 본처 권재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류치환의 호적을 보지 못한 상태였던 까닭이다. 그래서 권재순이 부른 배를 안고 만주행 기차를 탄 것으로 생각했다. 고향 통영을 하루바삐 벗어나야 할 류치환으로서는 그런 어려움까지 받아들이며 아내와 아이들을 재촉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화여대 조사진이 낸 『한국작가전기연구』나 그를 이어받아 문덕수가 옮긴 바와 같이 문성을 “양자로 대려”왔고, 1948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행방불명’ 상태라면 다른 물음이 떠오른다. 류치환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양자를 두어야 했을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 아이의 뒷날은? 평전 작가라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가볍지 않은 물음이다. 그리고 그에 관해 생존 가족의 구술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덕수는 그 부분을 이화여대 조사진의 『한국전기작가연구』에 기대 슬쩍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화여대 조사진 기록인 ‘양자’와 ‘행방불명’에 무게를 둔다면, 문성의 출생과 사망에 관해서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호적 기록대로 류치환의 만주국 체류 3개월 만인 1940년 7월에 문성이 태어났고, 1948년 12월 부산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갖는 이면이다. 곧 출생일은 ‘양자’로 입적시킨 시기일 수도 있고, 죽었다는 1948년은 “행방을 모르”게 된 시기를 뜻할 수 있는 까닭

이다. 류치환이 입양했다고 알려지는 차남이자 양아들 문성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호적상 문성의 죽음 시기와 누이 류치표의 월북 시기가 비슷한 1948년임이 공교롭다면 공교롭다 하겠다.

어쨌든 최창호의 기록을 터무니로 류치표가 2002년 현재 80노령으로 북한에서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진전이다. 거기다 류치표가 손수 쓰거나 활동했던 실증 기록인 ‘연기안」 「연극 〈북극성〉의 황씨역」³¹이라는 1차 문헌까지 얻은 상태다. 이 글은 〈북극성〉의 연출을 맡은 김봉엽·리귀영의 ‘연출안」 「연극 〈북극성〉」과 나란히 『조선예술』에 실렸다. 류치표는 〈북극성〉에서 주인공인 어머니 ‘황씨’ 역을 맡았다.

북한에서 ‘북극성’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이끄는 ‘향도’의 별을 뜻한다. 가장 높이 한 자리에서 불박여 반짝이는 별, 곧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다. 그



류치표³²



『북극성』의 한 장면. 오른쪽이 황씨 역을 맡은 류치표다³³

31 『조선예술』 제5·6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7, 49-55쪽, 72쪽.

32 최창호, 앞에서 든 책, 285쪽.

33 위의 책, 49쪽.

리고 그러한 북극성의 표상은 이른바 ‘최고령도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달라짐이 없다. 북한에서 새로 만든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이름을 ‘북극성-2’로, ‘잠수함탄도탄’을 ‘북극성-3’로 거듭 이은 데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강화’에서 ‘북극성’이 지닌 상징적 쓰임새가 뚜렷한 셈이다.

“김장군님의 부름이라면 아들을 웃으면서 죽음 터에라도 보내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오…….”

(남편의 유언)

“내 아들이 얼마나 굳세고 슬기로운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왔다.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너를 잘못 키우지 않았다는 걸 똑똑히 알고 싶어서 왔다…….”(황씨의 대사, 6장)

가정환경

황씨는 빈농가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고된 노동과 모진 생활고로 하여 황씨가 철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고아로 된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어졌다. 부모형제의 사랑을 모르고 외롭게 살아온 황씨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두고 자기의 가슴을 불태우면서 천대와 멸시 속에서 성장하였다.

라호걸과의 결혼을 통하여 황씨는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꼈다. 때문에 그는 인간에 대한 무한히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갈망하는 녀성이다. 그는 독립단에 다니는 남편을 항상 바라우고 맞으면서 아들 진동을 낳았다. 그때부터 황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락이었다.

왜놈들의 등쌀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남부녀대하여 이곳 국경지대 산골로 찾아왔건만 못사는 사람은 그 어데로 가나 쪼들려만 간다. 황씨는 이런 환경에서도 남편의 사랑과 아들, 딸, 며느리 등에 대한 애정으로 하여 인간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낙천적이고 활달한 적극적인 어머니이다.

『북극성』에 제시된 생활환경.

국경지대의 어느 산골 ‘화전촌’에서 부대를 일구고 산을 뜯으면서 겨우 연명해나가는 전민들의 생활.

최고과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찾기 위하여’

관통행동

‘가정에 대한 사랑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온갖 사랑을 다 바친다. 이를 위하여 사랑과 증오, 투쟁과 승리, 고통과 희열로 충만된 그의 정신세계의 체험과 강렬한 행동의 탐구.

황씨의 성격적 특징

1. 강의성-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어떤 곤난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주책없이 표현하지 않으며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하여 김일성 사령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자신의 모든 행복, 희망, 기쁨을 깡그리 바치며 오직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황씨, 이것이 황씨의 기본 성격이다.

2. 침착성-불의에 부닥치는 불행과 고통에도 허둥지둥 안하며 자기의 지조와 신조를 지키는 어머니, 어떤 폭풍,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걸어가는 황씨이다.

3. 활달성, 적극성, 엄격성

어머니는 속이 탁 트인 녀성이다. 무엇을 속에 넣고 우물쭈물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툭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어머니이다.

- 류치표, 「연극 『북극성』의 황씨역」 가운데서³⁴

34 위의 책, 48~49쪽.

류치표 ‘연극안’의 한 부분을 옮겼다. 연극배우로서 꼼꼼한 출연 각오와 성격 이해를 담아냈다. 북한 특유의 검열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자료다. 연극 무대에 나서기 앞서 배우는 연기안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데 연극 <북극성>은 이렇게 한 차례 『조선예술』에서 다루어진 뒤, 더 발전된 논의나 평가를 얻지 못했다. 『조선예술』로서도 드물게 ‘연극안’에 ‘연출안’까지 소개했던 작품이다. 그럼에도 그 뒤로 성공한 작품이라는 평가답론을 확연하게 굳히지 못한 셈이다.

이제 부왜 시인 류치환의 누이로 월북했던 류치표의 재북 시기 실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오랫동안 류치환을 둘러싼 여러 미해결 논점 가운데 하나가 확연하게 줄거리를 드러낸 마당이다. 통영 지역문학과 류치환 출향의 동향 파악에 눈을 크게 뜰 만한 새로운 상황 전개다. 류치표, 만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류치환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 적어도 월북에 앞선 시기 그미 삶의 이면은 물론, 이제부터 뜬금없이 류치환 호적 속에 이름을 올린 ‘입양 아들’ 문성과 그 아이를 둘러싼 속사정을 제대로 파 들어가 볼 일이다.³⁵ 어느덧 나는 류치환의 삶과 통영 지역문학의 전개를 더 높은 수준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섰다. 통영을 편하게 드나들지 못할 까닭이 없다. 통영 시내를 활개 걸음으로 걸어도 될 일 아닌가.

4. 통영문학관의 앞날

오랜만에 류치환 관련 파일첩을 꺼내놓고 들추었다. 「청마 유치환의 북

35 이 글의 의도는 재북 시기 류치표 실제 확인의 기쁨과 공개에 머문다. 그미에 관해 알고 있는, 또는 조사된 것을 죄 밝히는 글이 뒷날에 이어질 수 있기 바란다.

방시…」를 쓸 무렵 만들어 둔 것이다. 거의 20년 가까이 앞선 것들이다. 여러 생각이 오간다. 김윤식·김종길·문덕수·허만하·남송우로 이어지는, 류치환 예찬론자 계열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낱낱의 공적·사적 연고를 지녔다. 깊지 않다고는 하나 문학사회 흐름을 오래 지켜 본 나다. 짐작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럴수록 일찌감치 1970년대, 호의적인 평가 일색인 바다 한가운데 단단한 바위섬처럼, 류치환의 시가 현란할 뿐인 부풀림과 반민족적인 바탕에 있다고 본 고려대 오탁번이나 건국대 김갑순 교수의 논지와 날카로움이 새삼스럽다.

그나저나 거제·통영 역내 류치진·류치환 현양 사업을 이끌었던 예술 행정 책임자, 문화계 거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통영 예총지부 회장이라는 자리를 앞세워 날뛰었던 정해룡이라는 이는? 부왜 어린이문학가 김영일의 아들은 아직 통영에 살고 있을까. 류치진·류치환 현양 사업을 밀어 붙였던, 사업 당시 통영 시장은 고동주·진의장이다. 둘 모두 통영문인협회 회원이었지 싶다. 오늘날에도 한결같이 류치환 현양 행정을 자기 치적으로 삼아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내 짐작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류치표를 실증하기 위한 글을 찾아 뜻밖에 새로운 류치환 예찬론자를 만났다. 경북 의성 출신 이승하다. 그이가 뒤늦게 올라탔음을 알았다. 『경남 문인 4인을 새롭게 보다』(역락, 2022)가 그것이다. 그 안에 류치환에 관한 글을 짧지만 5편이나 실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경남 문학인은 류치환·이병주·김춘수·박경리다. 의성 사람이 경남 문학까지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역내에서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죄 알려진 작가다. 그들 명성에 한 표 더 마음을 엮고 가까이 붙어 선다고 변변한 논점이 나올 게 없을 듯싶다. 그럼에도 ‘새롭게’ 여러 편을 더했으니 용하다. 경남 문학인을 향한 이승하의 사랑이 참인 듯싶기는 하다.

그런데 류치환에 관해서만은 뜻밖이다. 어떤 연고일까? 무엇보다 놀라

운 점은 이승하 스스로 자신을 광기와 폭력의 문제를 오래 안고 고심해 온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시인은 몰라도, 광기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볼 때 류치환 경우는, 그것을 몸과 작품으로 실천했던 사람에 가깝다. 이승하가 차마 광기와 폭력을 권장하는 문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니 류치환과는 얽히기 힘든 상극 관계다. 그럼에도 류치환 예찬론자 계열로 자랑스러워하는 듯하니 속사정이 궁금하다.

괜찮다 싶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딸
작은 키
옆으로 퍼져 부끄럽다고 안 나간다
고양이 강아지만이 바깥 공기 전해주는데

언제부턴가
가슴이 커지고 갑갑하다
숨차다
이상했다
나가지도 않는 애를 두고 희한한 생각하다니

너 너
먼저 고개 숙였다
맞지?
누군지 말해 책임을 물어야지
열 달 금방인데
빨리

빨리
몇 시간째 뉘달에도 다문 입
다음 날
머리채 잡았다
누구나고?
울다가 쉬다가 울더니

가리켰다
제대하고 온 동생 방

- 김보성, 「업」³⁶

2025년 해끝에 나온 신예 시인 김보성 시집 『오빠 달려 노래주점』(산지니)에서 가려 뽑았다. 속살이 참담하다. 비록 가정 안쪽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라는 틀을 갖추었지만 이런 정도는 되어야 폭력이거나 광기라는 말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다. 남동생과 누나 관계는 언제든지 오라버니와 누이로 바뀔 수 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당대적으로나 이런 경우의 상피 붙기, 가정 폭력은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폭력과 광기에 예민한 연구자라면 류치환의 시에 드러나는 가학피학증적 성향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일찍이 1992년, 1950년 전쟁기 당대 우리 전쟁시를 검토하면서 나는 흥미로운 뒹뒹이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전쟁시는 내부의 적뿐 아니라 외부의 적대세력을 향한 비관용을 전면적인 수준에서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겨레붙이라는 동족감각은 그러한 비관용을 선택적 관용으로 바

³⁶ 『오빠 달려 노래주점』, 산지니, 2025, 41~42쪽.

꾸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북한 정권과는 달리 ‘인민’에 관한 직접적인 공격은 비껴간 것이다.³⁷ 겨레 구성원을 증오의 대상이자 적대적 타자로 맞세우지 않으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마음껏 ‘원수’로 겨레 구성원을 꾸짖고 증오한, 류치환의 냉혹한 ‘애국심’은 특이할 밖에 없었다. 일찍이 만주국 시절 부왜시「수」에서 득의했던 버릇을 되풀이한 셈이다. 폭력과 광기를 권장하고 그에 복무하는 문학이 아니라, 그에 맞서는 문학, 그 치유의 문학으로서 류치환 시가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류치환과 같은 이를 아직까지 이른바 ‘대가’니 ‘거장’으로 받든다. 왜 이렇듯 류치환 승상이 드높은 이승하에게 류치환기념사업회에서는 연구상이나 문학상을 주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류치환이야말로 자신이 지니지도 이루지도 않았던 삶과 문학으로 다른 이들이 누려야 할 명성을 가로챌 대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엄밀한 사실 파악과 해석을 빌려 연구에 실질을 더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론자를 비롯한 이들의 생각과 글쓰이의 생각이 크게 나뉘는 바, 류치환의 통영 출향 동기에 대한 논란부터 매듭을 지을 일이다. 류치환의 부왜 시비에 대한 지난 해 12월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가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이즈음 류치환 출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통영 지역에서는 ‘청마가 만주로 간 까닭은?’이라는 드라마까지 공연하리라는 풍문이고 보니 때도 알맞다. 글쓴이로서는 이미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앞으로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언제 어디서든 류치환이 자신의 잘못으로 통영을 쫓겨나듯 달아났다는 개인적 도주설의 속살을 밝히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역사에는 기억하기 위한 역사도 있고, 숨기기 위한 역사도 있다. 오늘날

³⁷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223쪽.

류치환에 대한 명성은 광복 뒤 지속적으로 숨기기 위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결과다. 그가 입에 담지 못할 파락호였든 대사상이었든, 전형적인 기회주의 부왜문인이었든 대시인이었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학인을 기리고 떠받들겠다고 나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나 해묵은 문학적 추억이야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실체적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그러한 역사적 허위와 사회적 건망증에 갇혀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 「류치환 부왜논의의 실질을 위하여」 가운데서³⁸

2008년 『경남도민일보』 류치환 부왜문학 시시비비 지상토론회에서 정과리의 반론을 다 읽은 뒤 나는 재반론 「류치환, 역사적 허위와 문학적 과장 위에 떠 있는 이름」을 실었다. 그럼에도 정과리는 그에 대해 재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짧게 줄였던 재반론을 뒷날을 위해 다시 키워두었던 것이 위의 글이다. 신문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에 올렸다. 2026년 현재도, 류치환의 시를 ‘생명파’나 “생명에 애착과 옹호”니 하여 ‘생명’을 앞세우고 ‘허무’나 ‘고독’, ‘아나키즘’과 같이, 듣기 좋고 그럴 듯한 말로 떠받드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일 것이다. 그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싶은 말마디가 위의, 마지막 토막이다. 이제 그렇듯 허깨비 같은 말로 칠갑된 류치환의 삶과 문학이 지닌 ‘반생명적’, ‘반민족적’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일이 남아 있다. 광복기부터 지난 잘못을 제대로 숨기고 희석하여 반공주의자,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인 양 체제 복무의 한 길을 보여 줌으로써 30대 후반에 벌써 ‘민족시의 거장’이라는 허명을 얻는 데 성공한 류치환 아닌가.

38 박태일,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4, 122-123쪽.

아아 나도 한 슬픈 기술자!
위선으로 악을 꺾고
거짓으로 진실을 속일 수 있으되
어느 악마나 신념에게로 버림받아
외로운 이방인처럼
이렇게 늙고 아위어만 간다.

- 류치환, 「기술자」 가운데서³⁹

이제까지 나온 류치환의 어느 작품집에도 실리지 않은 1958년 시다. 만주국에 들어가서 류치환은 자신을 ‘음수(陰獸)’라 일컫는 듯한 시를 남겼다. ‘생명의 서’ 2번을 붙인 「음수」다. “신도 노여워할 겁죄(劫罪)”에 쫓긴다고 썼다. 그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루어 보건데 이때 음수란 드러나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위 시 「기술자」에서는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참을 숨긴 ‘기술자’가 그것이다. ‘음수’였던 자기 ‘악’을 ‘위선으로’ ‘꺾고’ “거짓으로 진실을 속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개인 류치환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웠겠다.

이제부터라도 류치환을 싸고도는 거짓의 겉옷을 벗겨낼 때다. 그럼에도 인습과 허명이 달라질까. 버릇처럼, 너나없이 오갈 수 있을 ‘청마문학관’이 통영에 남아 있는 한 그 일은 어려울 것이다. 류치환을 이른바 거장인 양, 드높은 사상의 대변자인 양, 민족 시인인 양 떠받들고 존경하는 개인의 취향까지 막거나 탓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인이 박힌 오랜 사회 학습과 재학습의 결과인 까닭이다. 다만 저승으로 넘어간, 적지 않은 류치환 예찬론자에게 넌 지시 묻고 싶다. 당신들이 한누리 이루고자 한, 그 뜨거웠을 문학이 기껏 류

39 『도정공론』 2·3합호, 경상북도, 1958, 181쪽.

치환을 건너서지 못할 수준과 정도였던가? 그리고 살아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모름지기 당신 자식들에게 류치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권하고 싶은가? 모든 문학의 공공 현양과 예술문화 행정은 이러한 쉽고도 낮은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짓에 속고 인습에 갇혀 멋모르고 남들 장단에 덩달아 뒹굴 일이 아니다.

이제 오랜 세월 풍문에만 맡겼던, 류치환 누이 류치표의 재북 정주 사실과 실재가 드러난 마당이다. 그미의 혼인과 파탄, 그리고 월북으로 이어진 줄거리가 북한 안쪽의 기록을 빌려 뼈대를 더욱 굳혔다. 류치환 집안 문제의 크작은 실마리를 거의 갖춘 셈이다. 류치환에 대한 이해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통영 걸음은 비틀 걸음이 아니라, 달려 나갈 듯한 탄탄 걸음일 것이다. 그런 걸음길에서 류치환을 두고서 더욱 깊어져야 할 논의거리, 일거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국계몽기와 나라잃은시대 35년, 그리고 광복기에 걸친 통영 정신 지 흐름 속에서 아버지 류준수와 그 아들 류치진, 류치환 두 문인으로 대표되는 류씨 일족의 처신머리, 정신머리에 대한 규명.

둘째, 통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잘못의 앞뒤 사정과 양자 류문성에 관한 구체적인 속살.

셋째, 만주국 시절 ‘친만친일’ 곧 부왜 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시민 교양과 홍보.

넷째, 한누리 되풀이한 탈윤리와 교육자적 명분의 괴리 규명.

다섯째, 사고사라 미화된 자살의 참 공개.

여섯째, 근대 민족시 발전에 끼친 류치환풍 왜색 시어의 해악과 류치환 시의 본질 재규정.

일곱째, 모든 국정 교과용 도서에서 류치환 작품의 퇴출 활동.

여덟째, 거제·통영 지역 류치진·류치환 현양 사업과 그에 맞선, 시민사회 사이 쟁투의 전개 과정과 의의 구명.

아홉째, 청마문학관 폐관과 통영문학관 설립 활동.

이러고 보면 하나 하나 밝히고 따지고 헤쳐나갈 일이 한둘 아니다. 이들 가운데서 마지막 여덟째, 아홉째는 최정규 시인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리고 첫걸음을 떤 그의 ‘통영문학관’이 앞으로 세워질 통영문학관의 새로운 들머리요, 단단한 문지방이 될 것이다. 최정규 시인과 나는 많은 자리에서 엄청나게 다르다. 당장 통영 지역문학과 지역문학예술인 낱낱에 대한 포핍에서부터 같지 않다. 그럼에도 지역문학연구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최정규야 말로 어느 지역 누구에 못지않을, 참된 지역문학인이다. 이른바, 누린 바에 견주어 넘치면 걷어내고 모자라면 채우는 일은 지역문학연구가가 눈 부릅뜨고 이루어나갈 과업 가운데 하나다. 그런 까닭에 통영의 최정규가 소중한고, 최정규의 통영이 아름답다.